

연중 제24주일

기도서 P. 435 B해

제1독서(이 사 50, 5-9)  
 제2독서(야 고 2, 14-18)  
 복 음(마 르 8, 27-35)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론

## 자, 힘차게 나가시다!

### 소    순    형    신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교리지식에서 비롯된 틀에 박힌 대답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대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분이 제시하신 삶의 방법과 규범대로 살아갈 결단을 내리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느님께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은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어서는 안됩니다. 신앙고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 여자에게 향한 사랑의 고백도 사랑의 행위없는 말만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거짓 고백에 불과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것을 주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것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을 두고 진리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의 활동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러할 때입니다. 당국이 세칭 <오원춘 사건>에 대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조작된 내용을 알리므로 말미암아 진실이 어느 것인지 사람들을 혼란시킬때,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똑바로 고백했듯이 우리도 진실을 힘차게 외쳐야 하며 당국의 허무맹랑한 조작을 폭로해야 합니다.

행동을 동반한 신앙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걸치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마음과 입으로는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행동면에서는 힘없고 비겁한 때가 많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망각한 채 말로만 하느님을 섬기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께서는 <회절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서슴치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위에 먹구름을 느끼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순교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 용덕(勇德)을 본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새로이 되돌아 보고 힘차게 나가시다.

(한울 주임신부)



##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맹인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마태오 11, 2-6)고 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군중들에게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고 묻는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그리고 바쁘게 매일 매일 뛰어 다니는가? 왜 그렇게도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남을 헐뜯기까지 하는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왜 다 본듯이 자신에 넘치게 남을 몰아부치는가? 몰아부치다 못해 죽이려까지 드는 속셈은 무엇인가?

지난 10일, 전주교구는 소위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오원춘 사건>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간 이러한 모임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어 왔다. 오원춘 사건에 대한 출처불명의 유인물들이 집요하게 일방적으로 홍보해왔는데도 기도회 때마다 모여드는 인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경찰의 보호하닌 보호(?)를 받으며 열리는 기도회에 자신의 안위를 제쳐놓고 팔팔로 육교에 까지 들어서 배시잔여를 경청하는 시민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백성들의 뜨거운 열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정치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체제의 영향이 신앙생활에까지 끼치는 문제들이 있어서, 현실을 하느님의 눈으로 분석하여 옳은것은 옳다고 그른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 숲 정 이 산책







# 人權과 敎權 守호를 위한 全國 기도회

-1만 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쳐

전주교구(司祭團·正平·修女聯·平協·農民會)는 지난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중앙성당에서 「인권과 교권 수호를 위한 전국 기도회」를 가졌다. 전국 각교구의 사제단과 농민회원들,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와 평신도, 신의의 시민 등 5천여명이 중앙성당을 꽉 메워 미처 입장하지 못한 5천여명은 성당밖 팔달로변의 인도와 육교 및 차도까지 들어서 성황을 이루었다.

지각순 주교님 등 150여명의 사제단이 공동집전한 미사에서 김재덕 주교님은 90여분에 걸친 강론에서 근래에 빚어지고 있는 제반 사건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인권의 유린은 물론 교권의 침해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현실분석과 예언적 판단을 경청한 참석자들은 <미사 강론중의 박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미사에 이은 제2부에서는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오원춘(알퐁소) 형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상황(사건의 개요와 공판정청 내용)을 안동교구 사제들이 소개했다. 이어 오원춘 형제의 부친소개, 양심선언과 법정에서 공개된 쪽지(一名 제2의 양심선언) 소개, 주교단 상임위 성명서와 농민회, 한국경평위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이어 중앙성당에서 전동성당까지 절대 칩묵 가운데 견고자 했던 <희생의 길>이 당국의 저지로 20여분의 대치가 계속된 뒤에 이루어 졌다. 그러나 1차적인 대치는 미사의 봉헌예절이 진행중인 8시반에 경찰차량이 성당 정문을 가로 막음으로써 또하나의 중대한 교권침해와 함께(미사집전방해) 사실상 두시간여나 계속되었다.

전동에 모인 신자들은 목주의 기도와 성명서(아래 별첨 참조) 채택으로 4부행사를 모두 마쳐 11시 20분에 해산했다.

## 성 명 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하며,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라!”(루가 4, 17-19)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는 현 시국에서 빛어지는 암담한 현실을 가슴 아파한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권(大權)을, 오히려 정권 안보와 국민적 소망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도용하는 것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정부 당국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사이에서 발생되는 필연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지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의 맥박을 느끼면서 이땅에 참다운 정의와 평화를 실현키 위한 예언자적인 소명을 재 다짐하고, 이제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은 소리로 의치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결의하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한 우리의 뜻을 재삼 천명하는 바이다.

1)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원 오원춘 형제에게 가해진 납치 폭행, 유기사건은 통분을 금할 수 없는 불명한 사실이다. 또한 안동 교구청 난입과 정호경 신부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연행등의 만행을 조작극으로 합리화 하기위해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유인물을 통한 당국의 과잉 반응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와 그 선교활동을 억압내지 봉쇄하고자 하는 처사로 간주한다.

2) 수청 오원춘 사건과 Y.H사건의 원인 규명을 국민에게 은폐한채,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기 앞서 방송과 언론을 통해 행하여진 “사건여론 재판”으로 국민을 우롱한 처사는 부당하고 비열한 짓으로 규탄한다.

3) 9월 4일 공판정에서 밝혀진 오원춘 자필 “쪽지”내용을 또 하나의 양심선언으로 확신하며 “생명의 위협”앞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의 여하한 내용도 무효임을 선언한다.

4) 행정부의 시너로 전락한 사법부는 본연의 사법권을 되찾아 허수아비 노릇을 탈피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의 최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5) 작금 문정현, 함세웅 신부등의 재수감과 수많은 인사들의 연행 구속사태는 어두운 현실의 악순환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근본은 유신헌법과 그 안전장치인 긴급조치에 있다. 이에 우리는 그 부당성과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구속된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와 양심수인의 무조건 석방을 촉구한다.

6)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되돌려 주어 그들의 생존을 보호하고 농민에게도 권익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라. 아울러 언론과 학원의 자율성을 촉진하여 민주 역량을 배양하라.

7) 우리는 한국 주교단 상임위원회와 한국 정의평화위원회 및 NCC(한국 기독교 협의회)등의 성명을 건국 지지한다. 이에 정부 당국은 오늘의 사태를 직시하고 무모한 조작행위를 중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라.

1979년 9월 10일

-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 천주교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행정, 검찰, 세무, 경찰, 교정, 보도, 3군사, 은행(부기·주산), 공민감정사, (4·5급)

고입 대입 검정고시 주·야간

국·영·수 종합단과(매월 1일, 15일 개강)

### 이리 경문학원

원 장 한 정 상

교사초빙 : 전화 이리 ㉠ 5 9 4 3 · ㉡ 4 4 1 5





## 뜨거운 사랑의 일치 맛보아

—인권과 교권 수호를 위한 전국기도회 뒷소식

교형자매들과 뜻있는 선의의 민주시민, 갈려나간 형제(많은 목사님과 신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권과 교권수호를 위한 전국 기도회가 잘 끝났다. 그런데 12일 오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소문」이 나돌았다. 이번 기도회 문제로 해서 <주교님을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구에서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본당에 연락을 취했다. 사제들은 민첩했다. 자정이 넘을 때까지 사제들은 속속 도착, 또 한번 사제단의 결속과 결의 실천의 다짐을 과시했다.

13일 새벽 5시42분, 교황대사를 만나기 위해 김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윤공희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교구 사제 46명이 주교님을 에워싼 가운데 서울길을 제촉했다. 남아 있는 사제들과 각 본당 사도회 대표, 전주 시내 신자 1천여명은 오후 8시 중앙성당에 모였다.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며 기도회에 들어간 신자들의 기도가 끝난 밤 10시40분쯤 주교님의 승용차를 선두로 46명의 사제들이 모두 의연히 한 자리에 모였다. 「소문」은 결국 무산(霧散)되고 눈물이 솟구칠만큼 뜨거운 사랑의 일치가 꽃을 피운 순간이었다. 하느님께 감사, 일치를 보여준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들, 빛속에도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제쳐놓고 함께 한 교형자매들께 감사드릴 뿐이다.

## 배우고 싶은 자매들을 위하여...

—가톨릭 선타 야간학교 개설

교원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늘 배움의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는 여성들을 위하여 조그만 배움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커다란 학교가 아닙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모여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해보고자 하는 뜻의 모음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국 주관 아래 가톨릭선타의 협조를 얻어 작은 야간학교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간에 일을 하시고 야간을 이용하시어 배우지 못한 학과과정을 마치기를 바라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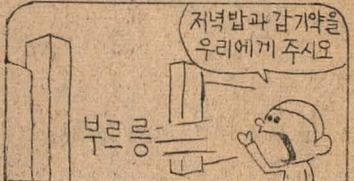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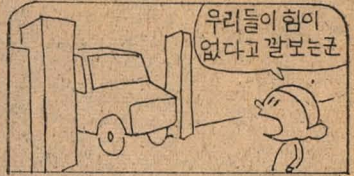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가톨릭선타 안내실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상의 하십시오.

1. 모집정원 : 〇〇명 (1학급)
2. 모집대상 : 국민학교 졸업한 여성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싶은 자)
3.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입학원서
4. 원서교부와 접수 : 9월 10일~10월 6일까지 (면접 : 10월 7일 가톨릭선타 사무실)
5.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전주 가톨릭선타 안내실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화 ㉠ 3498)

천주교 전주교구 가톨릭선타

## 요심이 (320)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겸 옆)

전화 ㉠ 6219

## 직원채용공고

1. 모집부문 및 자격
  - 1) 남자 : 〇명
  - 2) 자격
    - ① 만 20세이상~30세미만
    - ② 고졸이상 졸업자 (상고자 환영)
    - ③ 병역을 필한자 및 면제자
2.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통 명함판사진 2매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병적확인서 1통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⑤ 신원증명서 1통
  - ⑥ 건강진단서 1통
3. 접수마감 : 79년 9월 30일 17시
4.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5. 전형일자 : 79년 10월 2일 15시
6. 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 바람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전화 ㉠ 7188 번

## 결 (축) 혼

방준철 씨 장남 성 일(가별)  
(전동 사무장)  
이종선 씨 차녀 정 숙(누갈다)  
일시 : 79년 9월 16일 12시  
장소 : 전주 전동 천주교회  
주례 : 김병엽(베드로) 신부

각종 오토바이 수리 및 매매

## 현대 오토바이

유덕열(스테파노)

(구) MBC라디오 방송국 사거리

전화 2-1179

## MC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번  
유 율리야나

편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점검,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 신진프로판가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 5448 · ㉠ 1071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제 4 차 순교자 현양대회 9월 30일(일)로 연기...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학교부 그리기 작품을 9월 19일(수)까지 평협 사무국으로 보내 주세요. 날짜 지나면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다음 성가는 현양대회때 모든 교우가 제창하오니, 본당에서는 시간 나는데로 연습시켜 주세요. 입당...공동체 275 순교자의 믿음, 새전례 53주께드리비, 정선 127 복자찬가
  -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다음주(23일) 오후 2시, 각 본당에서
  - 전교사 연수회...9월 20일(목) 오후 2시~22일 오후 2시
  - 레지오 마리에 꼬미씨음 월례회...16일 오후 2시 복자 성당에서
  - 꾸르실로 교구 올드레아...오늘 오전 11시(등록 10시반),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 2천원  
※ 10월 9일 인천에서 실시되는 전국 올드레아에 희망자 접수합니다
- 정의 평화를 위한성금...전동성화회원 일등 2만원, 전동익명 대학생 6천원, 입실익명 5천원, 화산성모성심회원 2만원, 이리 창인동 익명 3만원, 전 동 최요한 5천원, 부산 대연동 천주교회 2만원, 중앙 김도비야 2만원, 전국 기도회 성금 482,947원, 13일 기도회 성금 20만 7천원  
※ 정의 평화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형 자매들의 성금은 계속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재민을 위한 성금...두주 대우병원 1만원, 중앙성당 방지기삼회 3만원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왕복  
보좌 신부 오수태  
사도 회장 이복석

- 성모회: 16일(일) 공식미사 후
  - 상지회 가족동반 치명자산 참배: 16일(일) 공식미사 후
  - 성지순례: 17일(월) 오전 7시 출발
  - 혼인성사 받으실분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 면담 바람
  - 청년 신심단체 체육대회: 16일(일) 장소-해성학교, 시간-오전 8시
- 지난주 봉헌금: 247,725원

####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공열  
사도 회장 김성복

-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공소 미사안내: 다리리 공소(오늘 오후 3시30분)
  - 기도회 참가, 수녀님들의 숙식준비에 협조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빌려주신 친구는 잘 사용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4,945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성  
사도 회장 유제상

- 사도회 상임위원회: 공식미사 후(회의실)
  - 건진예정자 오늘까지 신청서 납부하세요 중·고등학생 견진교리: 8시30분(주일)
  - 수재민을 위한 특별헌금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 교리경시대회: 오늘 오후 2시
  - 주일학교 교리: 오후 2시, 미사-3시
  - 화요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바람 9월 18일 저녁 8시
- 지난주 봉헌금: 19,635원 교무금: 122,820원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건진성사: 오늘 10시30분
  - 꼬미씨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복자성당에서
  -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다음주 오후 2시
  - 복자성당 주보축일: 26일 저녁 7시 주교님미사, 7명 유공자 시상
  - 애령사업에 협조하신분(익명)에게 감사드립니다 (연도책 30부 및 교통비)
  -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83,905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할머니회, 어머니회)
  - 수요기도회: 19일 오후 8시30분
  - 반상회: 9월 18일-9반, 19일-10반(성당에서), 20일-11반, 21일-12반
  - 첫 영성체자 신청 및 교리: 22일부터 교리 시작
  - 건진대상자 신청 바람: 예정일 10월 21일
  - 교무금 수납하여 어려운 본당살림 도움시다 (현재 5,790,000원중 1,805,900원 입금 31%)
- ※ 교구 올드레아 16일 11시-가톨릭센터
- 지난주 봉헌금: 83,725원

####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성모회 월례회: 9월 16일 공식미사 후
  -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16일 오후 2시 본당에 모이세요
  - 성지순례: 완주군 비봉면 천호 치명자 묘지 9월 23일 오전 9시 출발, 회비-1,000원 ※ 도시락 요안회에서 제공
  - 성당 신축기공식 예정: 9월 20일
  - 신축기금 신입해 주신분: 한완담(10만원), 중앙교우 박귀식(5천원), 이인준(5천원) 신축기금 내주신분: 루칼다 부녀회(3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40,745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석  
사도 회장 유석중

- 꼬미씨음: 복자성당 오후 1시30분
  - 9일기도: 산상미사-20일~28일까지 오전 5시30분 치명자산
  - 글라라 형제회: 23일(주일) 12시 치명자산
  - 교구 올드레아: 16일 11시 가톨릭센터
- 지난주 봉헌금: 301,740원

####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9월 22일부터(매주 토) 교리-3시30분, 성가-4시30분, 미사-5시
  - 사도회: 금일 저녁미사 후
  - 부녀회: 매월 마지막 주일
- 지난주 봉헌금: 58,900원